

# The Coming of the King

왕의 오심

Mark 1:1-11

## ■ Praise and Sharing

☞ Hymn 183

☞ Share with your group about how your week has been.

The gospel of the kingdom of God started with the coming of Jesus, the son of God, to earth. John the Baptist was the 'voice in the wilderness' who declared the kingdom of God to come. When Jesus was baptised by John, the sky was opened and the Spirit descended on him like a dove. This event confirmed that Jesus had come to earth as the 'king' (Messiah) of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세례(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광야의 소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왕'(메시아)으로 오셨음을 하나님이 확증하신 것입니다.

## ■ The Word and Sharing

### 1. John the Baptist baptised the people with water (vv. 1-5).

세례 요한이 백성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니다(1-5절).

#### 1) According to the prophecy of the prophet Isaiah, who was John the Baptist (vv. 1-3)?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에 따르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1-3절)?

#### 2) What did John the Baptist do in the river Jordan (vv. 4-5)?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4-5절)?

<Share 1> John the Baptist preached a baptism of repentance with water and prepared the way for the coming of the Lord. Discuss what we could do to prepare the way for the coming of the Lord as we wait for the second coming of Christ.

세례 요한은 물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며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습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이야기해봅시다.

## 2. John the Baptist baptised Jesus (vv. 6-11).

세례 요한은 물로 회개에 세례를 전파하며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습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이야기해봅시다.

### 1) How did John the Baptist see himself (v. 7)?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니다(6-11절).

### 2) What did John the Baptist believe that the Lord who was to come after him was going to do (v. 8)?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실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까(8절)?

### 3) When John the Baptist baptised Jesus, what happened in the sky (vv. 9-11)?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자,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9-11절)?

<Share 2> John the Baptist made it clear that he was the servant of the Lord. He even confessed that the baptism he gave was like a shadow of the baptism the Lord was going to give. In this way, true workers for the Lord never forget that they are not the centre of their ministry but servants of the Lord. Discuss when we are tempted to forget that we are servants of the Lord.

세례 요한은 자신이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가 베푸는 세례도 주님이 베푸실 세례의 그림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참된 사역자는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 주님의 종이라는 인식을 놓치지 않습니다. 주님의 종임을 잊게 되는 경우는 언제인지 이야기해봅시다.

<Share 3> Jesus received baptism in order to be united with sinners, even though he was without sin. He is not a king that dominates over his people but loves and serves them instead. Share about a time when you were surprised to realise that Jesus was a king that rules with love.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들과 하나가 되시려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군림하고 부리는 왕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사랑으로 다스리는 왕이심을 새삼 깨닫거나 경험한 적이 있으면 나눠봅시다.

#### ■ Pray Together

Lord, help me to serve Jesus as the king and live under his rule.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게 하소서.

---

---

---

---

---